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2:1-4
2026 년 6 월 21 일 오전 11 시

시작된 정의, 완성될 정의

< 주여 도우소서 >

최근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과 교권 붕괴, 그리고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강력한 개입을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정치철학 교수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의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막상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정의를 어떻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 42 장 1 절부터 4 절은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정의'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합니다. 먼저 메시아는 열방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1 절).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는 참된 정의를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3 절).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한 갈대를 더욱 짓밟고, 꺼져가는 등불마저 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정의를 세우되 상한 자를 희생시키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짓밟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정의는 폭력과 강압이 아니라 공훈과 진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1. 메시아가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정의

셋째로 메시아는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4 절). 인간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바뀌고 권력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정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를 온 세상 가운데 확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 섬들까지도 그분의 가르침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방에 정의를 베풀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며,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 절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징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1 절). 먼저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요 1:32-34). 이로써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목수 출신의 나사렛 예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에 정의를 베푸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시며, 마침내 세상에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을 무엇보다 심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쭈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눅 3:17). 세례 요한은 메시아께서 세상에 정의를 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 역시 선지자로서 정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분봉 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눅 3:19).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의 악한 일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헤롯 대왕이 죽은 후 그의 영토는 여러 아들에게 나누어졌고, 그들은 아버지와 같은 왕의 칭호인 ‘바실레우스(βασιλεύς)’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바실레우스가 아닌 그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린 ‘테트라아르케스’(τετράρχης)였습니다. 헬라어로 테트라는 넷, 아르케스는 통치자입니다. 본래 테트라아르케스는 ‘넷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이었으나, 당시에는 왕보다 낮은 지방 군주를 가리키는 행정적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를 ‘분봉 왕’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로마를 방문하던 중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만나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배우자를 버리고 서로 결혼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분봉왕 헤롯의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마 14:4).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자신을 책망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눅 3:20).

2. 회복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정의

감옥에 갇힌 세레 요한은 정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곧 정의를 행하시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분봉왕 헤롯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분봉왕 헤롯의 악행을 목인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눅 13:32). 예수님은 분봉왕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분봉왕 헤롯의 교활함과 간사함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지도 않으셨고, 초자연적 능력으로 분봉왕 헤롯을 즉시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레 요한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눅 7:20).

세레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22).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목록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표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사 35:5-6).

예수님은 세레 요한에게 "나는 메시아가 맞다. 그러나 내가 세우는 하나님의 정의는 네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레 요한은 정의를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의를 회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의 통치자들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악한 사람을 희생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어 버림으로 정의를 세우지 않으셨고, 꺼져 가는 등불을 끄므로 질서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한 갈대를 붙들어 주시고 꺼져 가는 등불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은 악인을 무너뜨리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상한 갈대를 고치시고, 꺼져 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다시 예수님께서 정의의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쉬파트(*משפט*)입니다. 미쉬파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거나 죄인을 처벌하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미쉬파트는 때로 악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때로는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고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죄를 죄라고 선언하고 악을 멈추게 하는 것도 정의이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상한 자를 일으키는 것도 정의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정의는 단순히 악인을 벌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메시아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사 42:3)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정의를 주로 심판의 관점에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채 "왜 예수님은 불의한 해롯을 그대로 두시는가?"라는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의를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이미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례 요한이 기대한 정의는 '응보적 정의'에 가까웠고,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정의는 '회복적 정의'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정의가 심판을 포기한 정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심판에 앞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죄인을 돌이키며, 상한 자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는 심판 없는 정의가 아니라, 회복을 통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정의입니다.

현대 법학에서 말하는 ‘회복적 정의’도 범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응보적 정의입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상처를 돌보고, 가해 학생이 책임을 인정하며,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돕는 것은 회복적 정의입니다.

3.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정의

물론 이사야가 현대 법학의 ‘회복적 정의’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미쉬파트에는 악에 대한 심판뿐 아니라 상처 입은 자의 회복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레 요한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메시아의 정의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세레 요한이 옥중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한편, 요세푸스를 읽어 보면 헤로디아는 상당히 야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남편 빌립은 통치권도 없는 평민 귀족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로디아는 더 큰 권력과 지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세레 요한이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다"라고 계속 외치고 다니니, 헤로디아 입장에서는 세레 요한이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딸 살로메를 이용하여 세레 요한을 죽입니다. 세레 요한은 분봉왕 헤롯에 대한 심판을 살아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헤로디아는 권력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오빠 헤롯 아그립바가 로마 황제 칼리굴라로부터 왕의 칭호인 바실레우스를 받은 것을 보고, 남편인 분봉왕 헤롯에게도 왕의 칭호를 얻어 오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결국 분봉왕 헤롯은 로마 황제를 찾아가 왕의 칭호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왕의 칭호를 얻기는

커녕 반역 혐의를 받게 되었고, 모든 권력을 잃은 채 유배지로 쫓겨나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심판적 정의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초림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을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 25:31-46).

예수님의 초림은 회복으로 시작된 정의였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으로 완성되는 정의가 될 것입니다. 초림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정의가 재림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의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상한 갈대를 품으시고 꺼져 가는 등불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정의에 동참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Father's Day 를 맞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셨던 것처럼, 가정 안의 아버지들도 심판과 정죄보다 회복과 격려를 통해 예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초림으로 시작하시고 재림으로 완성하실 예수님의 정의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정의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

시작된 정의, 완성될 정의(사 42:1-4)